

세광 가족 모두 성령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 예배 안내
 - 12월16일 성례주일
세례: 송윤철, 이미경, Evelyn Song, Anderson Choi
입교: Eunice Ahn, Chris Ahn, Elisha Choi, Eliana Choi, Dael Ki, Daniel Seong, Janice Seong
 - 12월23일 성탄주일
 - 12월31일(월) 11 pm 송구영신 예배
- PCA 한인동북노회 뉴욕시찰회 연합감사찬양제
 - 일시/장소: 12월 2일(주) 오후 5시, 뉴욕남교회 (51-5 Queens Blvd., Woodside, NY 11377)
- 교육부 공고
 - 학년말 학부모회의: 12월9일(주) 친교 후
 - 1층 로비에서 Food Donation Drive 진행중입니다.
- 예결산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합니다.
 - 보드대표(민홍기), 재정부(홍성훈), 예배부(김현정), 교육부(안상민), 선교부(최경자), 총무부(이영중), 운영위원장(서영수). 감사: 이영순
- 공동의회 공고:
 - 오늘 예배후 본당에서. 교칙개정안 승인을 위해
 - [교칙개정안 통과시] 2018년 12월9일(주) 예배후 본당. 장로 후보 선출을 위해

예배안내

- 주일예배: 오후 12시 본당
- 교사 주일예배: 오전 10시 친교실
- 유년/중고등부: 오후 12시 1층 예배실(유년부) / 2층 예배실(중고등부)
- 금요기도회: 오후 8시 본당
- 중고등부 금요성경공부: 오후 8시 1층 예배실
- 토요 새벽기도: 오전 6시 본당
- 구역예배: 구역별

11월 안내: 이향복 집사
 다음 주 기도: 황용규 집사 (시 25:1-10)
 이번 주 친교: 송은주 집사, 노미라 집사
 다음 주 친교: 김현정 권사, 오영숙 집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마5:14)

뉴욕세광교회

Sekwang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New York

담임목사: **이민영** / 914.874.3606(C) / mylee4x@gmail.com
 교육부 전도사: **Edwin Kim** / 유년부 간사: **안정자**
 지휘자: **임대영** / 반주: **이영미**

70 Bedford Road, Pleasantville, NY 10570
 www.nysekwang.org

교사에배

<오전10시>	인도자: 이민영 목사	
경배와 찬양(Worship & Praise) -----	다함께	
대표기도(Invocation) -----	강승연 자매	
봉헌찬송 -----	“좋은신 하나님” -----	다함께
봉헌기도 -----	이민영 목사	
성경봉독(The Word of God) -----	약(Jas) 1:1-8; 16-18; 3:13-18; 5:7-8 -----	이민영 목사
설교(Sermon) -----	“위로부터” -----	이민영 목사
주기도문(The Lord's Prayer) -----	다함께	

주일예배

<오후12시>	인도자: 이민영 목사	
* 입례찬송 (Opening Hymn) -----	1장 (통1장) -----	다함께
* 경배와 찬양(Worship & Praise) -----	다함께	
* 신앙고백(The Apostles' Creed) -----	다함께	
* 찬송(Hymn) -----	88장 (통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	다함께
대표기도(Invocation) -----	시 (Psalm) 132:1-12 -----	홍성철 집사
찬양(Choir) -----	“주님” -----	세광 찬양대
봉헌기도(Offering & Prayer) -----	인도자	
성경봉독(The Word of God) -----	약(Jas) 1:1-8; 16-18; 3:13-18; 5:7-8 -----	인도자
인사 및 광고(Greetings & Announcements) -----	인도자	
설교(Sermon) -----	“위로부터” -----	이민영 목사
* 찬송(Hymn) -----	393장 (통447장) “오 신실하신 주” -----	다함께
* 축도(Benediction) -----	이민영 목사	

* 일어나 주십시오 (Congregation Standing)

교회를 위하여: 눈물과 감동이 있는 예배 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성도 개개인의 구원의 확신과 신앙성장, 성령충만을 위하여
 새 가족이 쉽고 편하게 적응하도록
 구역장들 (목회자의 마음, 성령충만, 삶의 균형, 헌신)
 구역예배를 통해 교제가 풍성해 지도록
 성경공부, 성경통독, QT, 등을 통해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위해
 주일학교 담당 사역자들을 위하여
 선교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순돈호(슬로바키아), 최정희(도미니카),
 장영호(GP 본부), 이정석(WEC 본부), 김승훈(베트남), 정명섭(모잠비크)
 CSO(미자립교회 지원사역), 이성주 (필리핀), 최문재 (혼두라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디모데후서 2:1-13)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두 편지와 디도에게 쓴 편지를 “목회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아들”이라고 부를만큼 아끼는 후배들에게 사역과 경건에 대해 쓴 간절한 편지들입니다. 특히 디모데후서는 죽음을 예감한 상태에서 쓴 유언과도 같은 편지입니다. 목회와 경건에 대한 바울의 생각 뿐 아니라, 자기 삶을 돌아보며 가장 귀한 것을 남기고자 하는 바울의 심정을 읽을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배운 것을 다음 사람에게 가르치라고 합니다(2절). 자기 대에서 그치지 않는 하나님의 크신 일 가운데 자기 삶이 있다는 인식입니다. 바울의 삶은 끝나가지만 복음으로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은 계속됩니다. 그 일 가운데 쓰임 받은 것이 바울의 인생의 귀함이었기에 후배 디모데에게 그 일을 부탁합니다.

군사와 경기자와 농부가 다 그렇습니다. 자기의 생존이 아니라 전쟁의 승리가, 자기가 이기는 것 뿐 아니라 경기의 규칙이, 농사의 성공이 중요합니다. 전쟁의 승리와 경기 규칙과 성공적인 농사를 위해 애쓸 때 군인과 경기자와 농부의 수고가 의미있었습니다. 목숨을 살리고, 상을 받으며, 곡식을 얻습니다. 그러나 자기 목숨만 살리려고, 혼자만 이기려고, 자기만 먹으려고 할 때는 전쟁과 경기와 농사를 망칠뿐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도 망하고 맙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존귀해지고 보람있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선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내 인생이 놓여져 있다는 든든함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에 나의 수고와 관계와 소유가 쓸모 있으며 그것이 내 인생의 보람이라는 인생관이요 세계관입니다.

바울은 비록 자신은 매였어도 말씀을 매이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론 것을 자랑하거나 못 이론 것을 후회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후배 사역자에게 말씀을 부탁합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바울의 유언과도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말은 진짜 할 말을 하는 법입니다. 진짜 소중한 것을 전하는 법입니다.

바울이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그렇게 소중한 사역을 맡기면서, 가장 귀한 것으로 물려주고 있는 것은, 멋진 건물도, 큰 회중도, 좋은 프로그램도, 심지어는 올바른 교훈과 세계관 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킨 신앙의 본이었습니다. 교훈을 줄 뿐 아니라 그 교훈대로 산 자기의 삶의 본을 물려줍니다. 하나님의 사람 되라고 가르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된 자기 삶을 물려줍니다.

실제 잘 가르치는 힘은 무엇입니까? 잘 가르치는 내용이 아니라 그 가르침대로 살아간 진실한 본입니다.

우리는 후배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입니까? 실제로 가장 소중한 것을 물려주는 법입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았던 것을 물려주게 되어있습니다. 말로 가르친 옳은 교훈이 전달되는 게 아닙니다. 그 교훈대로 살아온 우리의 삶과 믿음이 전달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좋은 건물도, 바른 교훈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갈만한 좋은 환경과 교육도 물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온 우리의 삶의 본을 물려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할 때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